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중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8. 2 ~ 2020. 8. 22 제230호



▶ 해맑게 웃고 있는 몽골 형제. 제공: WMM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몽골에서 만난 두 형제, 천
진난만한 아이들의 미소가
사랑스럽다. 매일같이 동네
를 뛰어다니며 축구를 하고
는 교회로 향한다. 땀과 먼
지로 범벅이지만 하얀 치아
를 보이며 환하게 웃는 얼
굴은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어떤 날은 동생과 싸우고,
동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엄마
의 야단 앞에서 눈물을 글썽
이며 잘못했다고 고개를 떨
군다.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의 눈길은 이내 사랑으로 그
득해진다. 존재하는 것만으
로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분
이 있다. 바로 하나님 아버
지다. 그분은 하나님을 배반
하고 세상 정욕에 미쳐 이리
저리 사고치는 우리에게 징
계를 허락하시지만,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님 앞에 회개할 때면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존

재적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신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
서 나타났고 십자가는 우리
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을 덧입혀주었다. 하늘의 속
한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
님께 사랑스러운, 주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
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
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
리라”(고린도전서 15:49)
[GPNEWS]

한국 기독교 교단, 기독교단체 일제히 ‘차별금지법’ 반대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
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
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기독교 교단과 기독교
단체에서 성명 발표와 1인 시
위 등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바
로 다음날 30일, 차별금지
법을 반대하는 주요 교단
목회자들이 서울 종로구 한
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
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반연)을 결성하고 차별
금지법 반대에 각 교단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예장 고신 총회도 지난 4일
‘전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긴급으로 드리는 글’이라는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
에게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6월 29일과 7월 9일
에는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
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
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을 개최하고 “다수 국민
을 역차별하고, 표현의 자
유를 말살하는 반민주 독재
법인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어 7월 12일에는 바른인권
위원회 및 우리아이킴이
학부모연대 등 54개 교회
가 참여한 시민 모임이 지
난 12일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나
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
대한다.”며 규탄의 목소리
를 높였다.
이후 14일 대구에서는 CE
인권위원회와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전국영남교직자
협의회, 대구경북다음세대
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회
외 42개 단체가 대구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질 다음세대들에게 성적지
향 및 성별정체성 등의 잘
못된 성교육을 의무화함으
로 인해 가정과 사회의 질
서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
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
다.”고 밝혔다.

단체뿐 아니라 1인 시위
도 이어졌다. 대한민국수호
100만평신도연합 대표인
손 모씨는 7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
지법 반대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다른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반 인권법으로
규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을 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같
은 날 한국교회총연합(한
교총)은 15일 오전 상임회
장 회의를 열어 포괄적 차
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교
총은 또 ‘차별금지법 반대,
생명존중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월례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법 교회적인 한국교회 기도
회로서 매월 둘째 주 수
요일 조찬기도회로 진행하
기로 했다. 이어 22일에는 전
북기독교총연합회 등 50여
개 반동성애 단체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
북추진위원회’가 포괄적 차
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GPNEWS]

다음 호는 8월 23일자로 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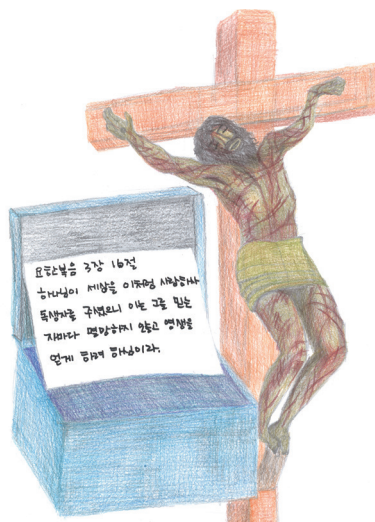
마음의 눈을 밝히사 (14)

복음을 싸구려로 취급하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
을 투자해 마음을 다해 준
선물을 상대가 쓰레기처럼
취급한다면 어떨까요? 자신
의 소중한 전부를 주었는데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
른다면, 어쩌면 그것은 너무
과분해서 오히려 뼈아파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러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우리가 아직 죄인 되
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우
리가 어떻게 취급하던지 상
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
는 가장 최고의 투자이자,
가장 극단적인 가치를 부여
하신 사건입니다. 또 성경
은 이 복음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고,
그 효력이 영원까지 미친다
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시
대마다 다른 복음이 필요치
않고, 한 장소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 가운데 만인을 구원하
고도 남을 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
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
리라”(누가복음 24:44)는 말
씀처럼 구약전체가 다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기
록입니다. 신약성경은 두 말
할 것도 없으니, 결국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또 복음에는 권위가 있습
니다. ‘하나님의 복음’ ‘아들
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권위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권위를



일러스트=김경선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런데 우리는 강하고 부자인
사람들 앞에 복음을 내놓길
부끄러워합니다. 가치, 범위,
효력, 권위만 보아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
물이 복음인데 말이죠. 만
약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하나님이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돈 몇
만 원짜리도 되지 않을 만큼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을 싸구려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취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헤브론원형학교, 선교단체들과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 협력

한국오엠·WEC국제선교회·순회선교단과 양해각서 체결 등



▶ 2020년 7월, 헤브론원형학교와 한국오엠이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 복음기도신문

20대 선교사 헌신이 급격히 줄어 가고 있는 이때,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선교단체가 협력,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독교 헤브론원형학교는 이 학교 졸업생을 WEC국제선교회와 한국오엠, 순회선교단에 위탁, 훈련과정을 운영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오엠(이사장 오정현, 대표 조은태)은 지난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헤브론원

형학교(이사장 김용의, 교장 조완순)에서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선교단체 양해각서(MOU) 협정식을 가졌다. WEC국제선교회(대표 김재형)도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단기선교팀의 첫 번째 대상자로 이 학교 졸업생을 받기로 하고 다음 일정을 조율중이다. 순회선교단(대표 안승용)도 이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해외로 출국하기 쉽지 않은 이때에 해외 사역

에 경험이 있는 선교단체들과 만남이 이뤄져 이들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해외 사역을 진행해온 선교단체들도 최근 고령화되고 있는 선교계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단기 청년선교사 영입을 고려하던 중 이 학교와 만남이 이뤄졌다.

이번 협력으로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2013년 설립된 헤브론원형학교는 이 학교 졸업생을 해양 선교선박인 로고스호프 GBA선 및 110여 개의 파송지에 연결하여 파송하는 등 각 선교단체의 훈련과정과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13년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는 부르심에 순종, 초등 4학년부터 고3에 해당하는 12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헤브론원형학교는 졸업생 전원을 2년간의 단기 선교사로 파송했으며, 이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대부분 국내외에서 장기선교사로 재헌신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 2021년 7기 졸업생은 20여 명에 이른다. [GPNEWS]

광주극동방송, 2박 3일 '라디오 수련회' 특별방송

코로나19로 교회 여름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광주극동방송이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라디오 수련회'를 8월 3일(월)~ 5일(수)까지 진행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와 특강, 여름성경학교와 부흥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극동방송 라디오 여름수련회는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한다. 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는 매일 저녁 6시 특별부흥집회를 인도한다. 그리고 오전 9시에는 '임재' '항해자'로 유명한 찬양사역자 김정석 목사가 3일 내내 찬양집회를 연다. 극동방송은 유튜브와 생방송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청곡도 받을 예

정이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아침예배'도 있다. 또한 수련회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에는 남경산 기도원장 김대성 목사가 '특별 기도회'를 인도한다. 김 목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메시지를 전한 후 생방송 문자로 들어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줄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에는 특강도 마련됐다. 자녀교육 전문가 홍양표 박사, 차별금지법 대응법과 관련해서는 울산대 이정훈 교수, 하다가(Haggadah, 히브리어로 이야기라는 뜻)와 마음다스림을 주제로 신

현구 목사의 특강이 각각 정오에 편성된다. 또한 매일 오후 2시에는 히즈쇼의 '라디오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방송되는데, 극동방송은 방송 중 문자를 보내는 30가정에 집에서 자녀들과 만들 수 있는 주일학교 교구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 극동방송은 치킨 100마리와 고급 화장품을 비롯해 푸짐한 선물을 '수련회 참가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수련회가 시작되는 8월 3일(월)까지 극동방송 생방송 참여문자 #0153으로 '수련회'라고 문자를 남기면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련회 핸드북'도 보내주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받을 수 있다. [GPNEWS]

키르기스 한상의 선교사, 코로나로 소천



키르기스스탄에서 학원사역을 섬기던 한상의 선교사가 코로나19로 폐렴 치료를 받다가 지난 21일 새벽 비슈켈에서 향년 55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한상의 선교사는 코로나19 증세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격리치료실로 옮겼

지만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이날 새벽 소천했다.

한상의 선교사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키르기스스탄에 한국어 교육 및 보급과 특수 사역을 해왔으며 한인사역자협의회 임원으로 섬겼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복음기도동맹군들과 연합해 복음기도모임에 참여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의 한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발인은 22일에 진행됐으며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인원이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위로를 전했다. 장지는 고려인들이 묻히는 묘지로 알려졌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의 한인선교사 약 15명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고 있으며 20여 명 정도가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르기스스탄은 7월 22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2만 8251명, 사망자는 1079명(미 존스홉킨스대 통계)이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7.18 ~ 7.31)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중국 동남부 홍수 피해 속출... 산사 댐 방류로 양쯔강 중하류 연쇄 피해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산사(三峡) 댐이 한 달이 넘는 홍수로 수위가 급상승함에 따라 방류를 해 양쯔강 중하류 수위가 상승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대형 담수호인 동팅후(洞庭湖)·타이후(太湖) 등 63개 저지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한 상태이며 601만 명이 수해를 입고 34만 7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하나님, 자연을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의 유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천재지변 앞에 겸손히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기를 구합니다. 교회의 핏박과 탄압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獨, G20 재무장관 회의서 세계 빈국에 4조 원 지원 약속

독일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 빈국을 돕는데 30억 유로(약 4조 1000억 원) 지원을 약속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을 통해 장기 대출 방식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18일 전했다.

주님, 독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빈곤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때에,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루터를 통해 온 세상 지축을 흔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 번 허락되길 간청합니다.

서울 쿼어행사 반대 청원, 검토 중에도 사전 동의 7만 명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됐던 제21회 서울 쿼어문화축제 일정이 9월로 재확정된 가운데, 쿼어축제 반대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지 나흘만에 7만 명이상(7월 20일 오전 11시 기준)이 사전 동의했다고 지난 20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기관과 단체는 자발적으로 코로나 전염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모든 모임을 전부 취소하는데, 어떤 생각과 의도로 동성애축제를 강행하는 것인지,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생각 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악을 옳다 옳다 말하는 이 세대를 주님께 고발합니다. 코로나의 확산뿐 아니라 죄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쿼어축제를 막아주시길 간구합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8월 3일 ~ 8월 22일

8월 3일 ~ 8월 8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8.3(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8.4(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8.6(0-24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8.6(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8.7(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8.7(13-24시) ▶경남 김해 / 함께지어져가는교회(이**)010-5598-5583, 8.7(12시)-8(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8.7(22시)-8(04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6교회 진행중.

8월 10일 ~ 8월 15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8.10,13-15(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8.10-15(10-22시) ▶전북 완주 / 복음과기도의집(김**)010-4743-9397, 8.10-15(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8.11(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8.13(0시)-14(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정**)010-3697-0641, 8.14(10-12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715-3727, 8.14(13-24시) ▶경북 울릉도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8.15(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5교회 진행중.

8월 17일 ~ 8월 22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8.17(10시)-22(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8.18,20-22(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8.18,22(10-13시) ▶경기 의정부 / 의정부열방교회(김**)010-2805-4641, 8.21(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 작은교회(강**)010-7129-7224, 8.21-22(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8.21(22시)-22(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난민 사역

“농촌 교회에 난민 정착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대해요”

2001년 1명으로 시작된 한국 속 난민... NGO 피난처, 난민 공동체 운영

우리나라에서 난민문제는 오랫동안 남의 일이었다. 그러다 2년 전 제주도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몰리면서 난민입국의 찬반양론과 함께 난민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됐다.

우리나라가 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뒤 1993년 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국내에서 난민법이 발효된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았고, 첫 난민 인정은 2001년에 1명을 시작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다가 2008년 36명, 2012년 60명, 2015년 105명 등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가 모두 3373건이었다.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6만 4357건이었다. 그러나 난민신청 건수와 체류허가 건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이 국내에 누적 6만 명 이상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6만 명의 난민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내전과 정치, 경제 난민으로 고향을 떠나 어렵게 도착한 이곳에서도 그들을 돌봐주고 받아줄 곳이 넉넉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난민을 위해 공동체 시설을 운영하며 섬기는 비영리 NGO 사단법인 피난처가 있다. 1999년에 시작된 피난처는 북한 난민, 쿠르드 난민을 비롯해 국내에 입국한 난민들이 한국에서의 난민신청 문제와 생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난민들을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도화(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고 그리스천 공동체로 흡수되어 복음을 만나게 하는 모태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에 교회들이 부분적으로 헌금도 하고 가끔 봉사활동도 하지만 공동체로 가족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난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환영을 못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난민들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가장 환영 받을 수 있는 곳이 농촌이다. 농촌에

는 교회 커뮤니티 안에 난민들이 들어가서 농촌에서 정착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난민 사역에 교회와 함께 하는 연합의 일환으로 현재 충신감리교회(배철희 목사) 선교팀이 매주 수요일마다 NGO 피난처를 방문해 난민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점심식사를 섬기고 있다. 또한 난민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이호택 대표는 피난

처 센터에서 식사를 섬겨주는 팀은 처음이라며 이 교회 선교팀에게 매우 감사해했다. 선교팀이 식사를 섬기게 된 과정 또한 놀라웠다. 이 대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난민들을 섬겨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선교팀은 기도를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왔다. 역지로 더 부탁할 게 없었다.”고 말했다. 식사 섬김을 마친 선교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GNNEWS]



▶ NGO 피난처 이호택 대표(우측 끝)와 충신감리교회 여성교회. © 복음기도신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끼의 밥상’

충신감리교회 여성교회, 매주 수요일 난민 공동체 찾아가 식사봉사

충신감리교회(배철희 목사) 이채선 사모가 3층 주방 옆 식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오면서 종이 박스를 열었다. 안에서 지름이 50cm는 넘어보이는 선풍기가 나왔다. 여름이 되면서 이곳이 너무 더워, 하나 사왔다고 했다. 방문했던 그날의 메뉴는 풍성한 야채 덮밥과 된장국. 거주하는 난민들과 이곳 난민 사역 관련된 모임 등으로 참석한 사람 등 이날 점심 식사인원은 60여 명. 적지 않은 인원수였다. 설거지를 마친 선교교회 식구들과 한 자리에 앉았다. - 어떻게 이런 섬김을 시작하게 됐나?

이채선 사모: “2010년에 일어난 아랍의 봄(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 때부터 무슬림 선교를 시작하게 됐다. 매년 1월에 열방의 땅 끝으로 가는 기도 아웃리치에 무슬림을 품고 기도하다가 튀니지를 처음 방문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무슬림권으로 아웃리치를 가서 기도했다. 2015년 무렵, 시

리아 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단한 이동경로를 보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했다. 당시 독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되면서 난민들의 실상을 보게 됐다. 그때 난민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한국에 있는 난민센터를 소개받았다. 그렇게 2018년에 처음 이호택 대표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국내에서 하는 난민 사역이 익숙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섬길까 고민만 했다.”

- 이렇게 식사를 섬기게 된 과정은?
이채선: “교회에서 생명기도라는 이름으로 기도운동이 시작됐다. 지난 1년 동안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과 사명으로 기도했는데, 올 3월에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역 일정이 멈춰 섰다. 이후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기도를 하던 중 예전에 논의됐던 난민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주님께 묻고 있었다. 기근의 때에 요셉의 창고를 열고 먹이는 일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다. 때마침 부활절 헌금을 흘러보낼 곳을 구하다가 피난처에 오게 됐다. 필요한 것을 물어봤더니 밥을 해달라고 하셨다. 올초 2개월 동안 교회에서 밥해먹으면서 기도해왔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섬기면서 어떤 은혜가 있나?
이채선: “우리 여성교회 소속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 ‘밥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선교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럽다.”

최경옥 권사: “기도를 하면서 난민에 대해 알았다. 독일에 갔을 때 난민을 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다. 나이 일흔이 된 지금도 하나님 일에 끼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밥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다는 생각 안하고 기쁘게 섬기고 있다.”

김주연 장로: “이곳에 오기 위해서 기도도 한다. 우리는 그냥 아줌마들이고 기도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오늘도 처음 해보는 음식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 이곳에서 난민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

이채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난민들이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다. 다양한 나라에서 왔다. 콩고,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이란, 케냐, 모로코... 열방이 다 모여 있다. 이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그 중 한 명은 이렇게 고백했다. “난민이 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났다. 난민이 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이런 여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교회가 난민들을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다.” 난민으로서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 교회에서는 난민 사역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

이채선: “많은 재정을 들여서 선교도 가는데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온 난민들을 당연히 돌봐줘야

한다고 말한다. 선교지에 가도 기도하고 밥하고 교제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독일에서도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곳에서도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 선교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다소 전투적이었다. 기도하고, 실제적인 복음을 나눠야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입술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 밥 해주는 것이 무슨 선교냐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처음부터 이 사역을 주셨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 사역을 통해 어떤 은혜가 있나?
김주연: “오병이어가 생각한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을 먹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채선: “기도하면서 룯기에 나오는 고엘을 말씀해주셨다. 기업무를 자의 역할은 희생이었다. 내가 지불하지만 내 이름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다. 철저한 희생, 손해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 보게 하셨다. 철저히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함께 살게 되는 이 일로 부르셨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며, 바로 고엘 공동체가 교회의 사명이었다.” [GNNEWS]

Y.K.



▶ 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 복음기도신문

기획 | 창조 이야기 (38)

공룡은 많은 역사 기록에서 발견된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사람들이 공룡을 죽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기 때문에, 위협적이니까, 자기가 영웅임을 증명하려고, 인간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땅을 차지하려고, 약으로 쓰려고 등등. 아시아 의학의 처방에는 용의 피, 용의 뼈, 용의 침 같은 용어가 많다.

중국 전설에는 '유'라는 사람이, 홍수 후에 땅을 조사해서 구획으로 나누고 물이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운하를 건설해서 땅을 다시 살기 적합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뱀들과 용들이 습지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그건 정상이다. 도시를 건설하려면 용을 쫓아내고 도시를 건설해야 하기 때

문이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용을 쫓아내야 했다. 또한 중국 달력은 12동물로 상징한다. 그런데 왜 돼지, 닭, 개 등등 11개의 실제 동물들 사이에 신화적 동물인 용을 넣어 놓았을까? 유추해보면 그들이 이 12가지 상징들을 만들었을 당시 이것들이 다 실제 동물이었을 것이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도기의 조각은 이집트의 슬레이트 조각이다. 이것은 통일 이집트 왕국의 첫 번째 왕조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각에는 목이 긴 용이 조각되어 있다. 왜 긴 목 공룡을 3800년 전에 도기에 넣었을까? 또한 기원전 12세기 하마 어금니로 만든 장식품에는 목이 길고 꼬리가 긴 동물이 새겨져 있다. 또 다른 원통 도장에도 명백히 긴 목 공룡으로 보이는 것이 새겨져 있다.

성경은 이사야서 14장에서 '날아다니는 불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날아다니는 불뱀'에 대한 이야기

는 고대 역사 이야기에도 종종 기록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내가 '부토'의 거의 정확히 반대편인 아라비아의 어떤 지역으로 날개 달린 뱀에 대해 물어보러 갔다. 거기 도착했을 때 뱀의 척추와 갈비뼈를 보았고, 그 모양은 표현하기 불가능한 모양이었다. 날개 달린 뱀은 물뱀 모양이었는데 날개는 깃털이 없었고 박쥐의 날개와 닮아 있었다. 그 뼈들이 놓여 있는 곳은 험준한 산들 사이의 좁은 협곡의 입구였다. (이 뼈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된다. 봄에 날개 달린 뱀들이 아라비아에서 이집트로 날아오지만, 그들은 이 협곡에서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아비시스'라는 새를 만난다." 1세기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책은 모세가 에티오피아에 왔을 때 죽어야 했던 날아다니



▶ 지구상 가장 오래된 도기 조각인 이집트의 나르메르 팔레트. 왼쪽 면에는 목이 긴 용이 새겨져 있다. 출처: ancient-egypt.org 캡처

는 불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앵글로 색슨 연대기에도 서기 793년에 불뱀이 궁창을 가로질러 날아간 것에 대해 기록돼 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신 마르둑의 그림에 불을 내뿜는 용을 그려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설마 불을 내뿜는 용이 있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 나는 그것이 있었다고 믿는다.

용이 41장은 리위야단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솔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욥 41:19~21) 성경은 정말로 불을 내뿜는 용이 있었다고 말한다. <계속> [GN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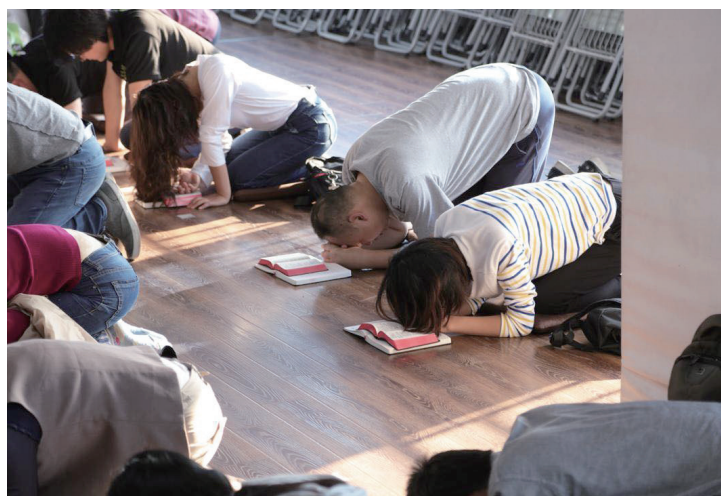
선교 통신

중국 지도자 초상 거부한 장애 기독교인, 복지수당 취소

"이 고난 덕분에 우리가 복음의 달콤한 향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중국 이른비언약교회 리왕치양 장로가 체포되기 직전에 교인들을 격려하며 했던 말이다.

중국 성도들은 2017년 종교 사무행정에 관한 새 규제법이 발표된 뒤부터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아왔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빈곤 계층 기독교인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대신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중공 당국자들은 산시성 북부 도시 린펀에 소재한 기독교 신자의 집에 찾아와 집 안에 설치된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이나 그림을 중공 지도자의 초상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복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또 지난 4월, 장시 남동부 신유시 지방 정부는 장애인 기독교인 가정에 지급된 최소 생활 보조금과 월 100위안(약 1만 7000원)의 복지수당을 예배에 계속 참석했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성도들은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있다(행 5:41).

순교자의소리에 따르면 2018년,



▶ 기도하는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 출처: 이른비언약교회 페이스북 캡처

중국 청두시 이른비언약교회는 교회를 폐쇄하라는 정부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갔다. 정부 당국자들은 허위 자백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며 교인들을 경찰서에 구금하고 고문했다. 그러나 담임 목회자가 투옥된 상태에서도 교인들은 담대하게 계속 모여 예배드렸다. 2004년 가정 성경공부모임으로 시작된 이른비언약교회는 애초부터 예배를 의도적으로 공개했을 뿐 아니라 청두시와 중국 전체에 대한 선교적 입장도 밝혔다. 이른비언약교회의 전략은 정부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기독교 신념을 굳게 붙잡는 것이었다. 2018년 5월, 이른비언약

회에서 쓰촨성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린 날, 경찰이 급습, 성경책 1만 권 이상과 기타 서적, CD 등을 압수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을 준비하도록 성도들을 훈련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위협과 교회 폐쇄 강요는 아무 소용 없었다. 몇 개월 동안 정부의 핍박을 견뎌내던 이른비언약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목소리를 높여 말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2018년 9월 1일에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서는 "복음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와 목숨까지도"라는 담대한 진술로 끝을 맺는다.

2018년 12월 9일, 청두시 경찰은 이른비언약교회를 급습했고 3일 동안 교인 1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리왕치양 장로는 체포되기 몇 시간 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2018년이 막 저물기 직전, 12월 9일에 하나님은 대규모 핍박이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리 장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베드로전서 4장 12~14절 말씀대로 핍박을 직면하자는 지침을 교회에 전했다. 이른비언약교회 교인들은 공격과 심문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겼다.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교도관들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성도들의 삶을 보고 복음에 대해 마음이 누그러진 교도관에 대하여도 전해 주었다. 리왕치양 장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크게 기뻐하며 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세상이 알면 좋겠다."고 말했다. [GNNEWS]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복음의 능력

빛이 나와 관계있는가?

어떤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그들은 성경에서 읽고 알게 된 것을 체험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다. 거듭남에 대해 성경에서 읽었다고 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성경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깜깜한 밤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주머니 안에 손전등이 있지만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다. 길을 비출 수 있는 손전등이 있지만 꺼내서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성경의 약속도 우리의 삶속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 성경은 '빛 가운데 행하라.'고 가르친다. 행하지 않으면 이 빛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GN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선교지에 심으려던 부흥을 선교현장에서 배운다

선교를 배우고 가르치는 오영철·김보순 선교사 부부



© 복음기도신문

대학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선교에 눈을 뜨게 됐다는 오영철·김보순 선교사 부부. 대학을 졸업하고 이들은 곧바로 태국으로 떠나 카렌족을 섬기게 된다. 오 선교사는 1995년 한국교회의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카렌 교회에는 오히려 배울 게 더 많았다. 그들에겐 좋은 신앙 유산이 있었다. 오 선교사는 그때부터 카렌교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연구로 코로나 사태를 맞은 현 선교계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 어떻게 카렌족을 만나게 되셨나요?

오영철(이하 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복음을 알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

가 선교단체 CCC에서 활동하면서 1985년에 참석한 모임에서 선교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 단기선교로 카렌족 마을을 세 번 다녀왔는데, 1995년께 카렌족을 섬기는 팀에서 카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고 협력하자고 하셔서 1996년에 카렌족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카렌족을 향해 떠나다

- 선교사 초기에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떠난 것도 사실이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 한국교회의 옷을 입고, 한국교회의 경험을 나누는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이미 복음이 놀랍게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복음 확산이 되고 있는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전도에 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양 선교사들이 그것을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의 헌신, 상황의 적합성,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도 적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척박한 지역에서 복음 사역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 그렇군요. 그런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지난 20년 동안 태국에서 복음이 가장 확산된 지역 중 한 곳은 치앙마이외의 오지 마을이에요. 500개 정도의 마을에 40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됐어요. 이것을 이끌어 가

시는 분은 현지 카렌족 목사님이예요. 이 분이 1990년대 목회를 시작할 무렵 100명 정도였던 교인이 지금은 3000명이나 돼요. 이 분의 간증 중에 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1980년대 말,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3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고통하고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기도를 요청했지만, 자신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음날 또 찾아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더듬더듬 기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주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준비가 되고, 얼마 안돼서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또 학교가 없는 한 마을에서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 마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자연히 그 마을이 복음화됐어요. 처음에는 불교신자가 많았던 그 마을에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면 예배당에 돌을 던졌어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는 마을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 결국 사람들이 꺼리는 묘지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 일대 수만 평의 땅을 갖게 됐어요. 땅이 전부는 아니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하신 것이죠. 이런 전도의 열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와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처가 교회가 될 때쯤 되면 재정을 분리시키고 교육을 시켜요. 교회의 역할, 여전도회의 역할, 청년회의 역할 등등. 성인교회의 역할을 가르친 다음 합격되면 큰 잔치를 해요. 소도 잡고 돼지도 많이 잡아요. 여기서 성인교회가 된 많은 경우는 전도처를 붙여줘요. 그럼 처음부터 이 교회는 전도처를 관리해요. 교회는 헌금을 하게 돼 있는데요, 총회 10%, 지방회 10% 등 상회비를 내기 때문에 지방회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방 교회가 어려운 곳도 있는데 이런 구조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구조예요.”

전도에 힘을 쏟는 카렌교회

- 그렇군요. 그럼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오: “현지에 설립된 실로암신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일반 과정도 있고 목회자과정도 있어요. 태국카렌침례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600개쯤 되는데 일부는 교인들이 검증된 사람을 목회자로 뽑기 때문에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사역자가 있는 셈이죠. 그런 분들이 학생으로 옵니다. 학교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람을 배출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어요. 소수인 카렌족이 태국과 미얀마 선교를 해야 되니까, 주 민족을 위한 선교 사역의 선교사로 세우는 일을 신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두고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원리라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예요. 지난 200년 이상은 유럽 같은 강대국에서 제 3국으로 향하는 게 일반적인 선교 방향이었는데, 성경에는 오히려 약한 유대의 분파였던 기독교가 로마로 향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어요.”

- 사모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보순(이하 김): “남편을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선
(6면에 계속)

카렌족의 복음화 상황과 선교동향을 담다

카렌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95년에 그들을 찾은 오영철 선교사는 오히려 현지교회를 통해 많이 배웠으며,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고 고백한다.

실제로 자신 뿐만 아니라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가 카렌교회를 방문하면서 감동을 받을 정도로 이들 교회는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 덕분에 오 선교사의 생각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소수부족인 카렌족 교회가 어떻게 주 민족인 타

이족과 버마족을 위한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또 그러한 감동을 한국교회에 나누기 위해 그동안 보고 들은 카렌족의 복음화 상황과 선교동향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카렌! 그들을 통해 배우다’(오단출판사, 2020, 296쪽)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책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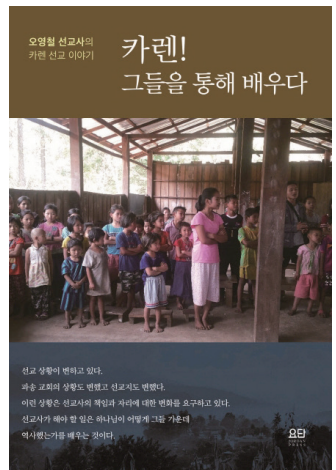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카렌족은 인종적으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더 세부적으로는 13개의 언어권으로 구분돼 소수종족마다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갖고 있다. 오 선교사가 대상으로 하는 태국의 카렌족은 50만 명 정도로 이들은 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태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지만 태국의 통치권 아래 사는 것을 불편해하지는 않는다. 국가 정체성은 태국이고 민족 정체성은 카렌이라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의 카렌족 상황은 다르다. 40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내전 지역 중 하나다. 태국과 미얀마 중간에 위치한 카렌주

에서는 1949년부터 시작된 내전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카렌족의 세력이 이 같은 충돌을 견딜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 카렌족은 독자적인 국가(國歌)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의 가사에는 “우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난민이 되어 각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 미국에는 100개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미국카렌침례교연합회가 만들어졌다. 유럽에도 이들 교회연합회가 만들어졌다. 이들 난민 중 일부는 그 나라 시민권을 얻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리고 모국어로 신학을 배워, 일부는 다시 돌아가 카렌 난민들과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도 그런 목적으로 활동하는 카렌족이 있다. 그들이 한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한국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들은 자기가 태어났던 난민촌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난민이 또 다른 난민을 돕고 있다. [GPNEWS]

Y.K.



▶ 오영철 선교사는 잊혀진 카렌족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참된 예배자 (2)

영적 질병 증후군, 예배의 위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말 1:2, 새번역)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앞에서 드러낸 인간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그래도 제대로 믿는다고 뽑은 사람들이었다.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말 3:13)

‘내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세상이 사는 대로 같이 흘러 떠내려갈 때는 괜찮다가도 정신 차리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는 일마다 부딪힌다. 가족들에게도 인내와 믿음의 한계를 시험 당한다. 복음을 만나고 처음에는 감격해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주님의 사랑한다는 말씀은 이제 감동이라기보다 섭섭하게 들

린다. 이런 게 사랑하시는 거냐고 묻고 싶은 생각도 차오른다. 주님은 그런 반응을 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말로 대적했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그 앞에서 ‘내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나는 입술로 그런 죄를 지은 적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말 3:14-15)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교만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번성한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

되니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킨다고 하고 슬프게 행하는 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빛이 점점 힘을 잃어갈 때

암울한 시대, 경건한 자가 핍박을 당하고 진리가 조롱을 받는 어두운 때, 우리의 내면은 심각하게 도전받는다. 말라기 때의 이들은 복음을 선택하고 주님 편에서 서서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냈다. 비록 포로였으나 터를 잡고 살만하던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 새로운 땅에 왔지만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어려워져 낙담하고 낙심했다.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빛이 점점 퇴색하고 힘을 잃어갈 때, 옛 본성이 슬그머니 살아난다. 이때, 심각하게 도전받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예배이다. 영적인 영역이 공격받을 때 만약 그 영역



일러스트=이예원

을 적에게 빼앗긴다면? 사탄의 독화살을 맞는다면? 중증의 영적 질병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바로 예배에 대한 위기이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는 주님께서 영적 질병, 바로 예배

의 위기에 걸려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낸 진단이다. (2018년 2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기독교미디어
GOSPEL & PROTESTANT MEDIA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Life in the Gospel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데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전도지 규격 : 182X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10,000원) 이상 주문 가능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세속화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순장이었는데 지금도 순장님이 가끔 편한 호칭이 돼요. 저희가 1992년에 결혼을 하고 신혼 여행처럼 태국에 단기선교를 갔어요. 그때 카렌족의 상황을 보게 되고 1995년에 태국으로 나가게 됐어요. 매일매일 한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또 현지에는 돌봄이 필요한 선교사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사역에 여러 면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 지난 사역 돌아보실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실텐데 나눠주세요.

김: “푸른초장이라는 한국 선교사 자녀 기숙사를 치앙마이에서 하고 있어요. 지역이 열악한 곳으로 가는 선교사들의 자녀교육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1997년에 치앙마이에 이사 가면서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돌

보고 있는데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분들이 안식년을 떠났을 때 우리가 1년 가서 섬기고 있죠.”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 나눠주세요.

오: “소수민족이 주 민족 선교를 하는데 카렌교회 좋은 샘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세속화 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빛이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곳도 명목상 불교도가 많아요. 진리를 선명하게 증거 하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비량 선교사들이 주위에 있는 열린 태국인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김: “우리 가정이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GPNEWS]

C.K.

▶오영철 선교사가 카렌족 지체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다. 제공: 오영철 선교사

“네가 고통스러워하던 그때, 나는 너와 함께 했다”

주님과 첫 사랑을 기억할 때면, 나의 모교인 헤브론 원형학교가 많이 생각한다. 나는 이 학교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학교에서 지내며 드렸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사람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난 선생님들의 많은 격정거리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토기장이'였다. 내게 담아놓으신 복음의 가치를 알아갈수록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 기숙학교인 헤브론에서 토요일에 하고하고 월요일에 등교할 때까지 반드시 결단한 분량만큼 전도지를 돌렸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말로 복음을 전했다. 방학이 되면 매일 전도를 나갔고, 매주



일러스트=고은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여러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내게 엄습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위로하심이 더욱 커져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극내향적이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은 대로 나를 빚어 가신다는 것을 보았다.

헤브론에 들어온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나는 얼굴을 시작으로 꽤나 심한 피부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운동은 열심히 했

지만, 체질적으로 몸이 허약하고 쉽게 지쳤다. 졸업할 앞둔 학기에는 7가지 정도 되는 질병이 내 몸에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그때 나는 지쳐서 방에 혼자 누워있었다.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고 망가져가는 것 같은 몸을 보며 속상했다. 그런데 누워있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슬며시 말씀해주셨다. “네가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했다.” 이 말씀이 내 심장을 강타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주

님은 멀리서 나의 고통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내가 아팠을 때 놀랍게 역사하셨다.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기도했고, 주님은 나의 기도로 놀랍게 일하셨다. 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었고, 내 마음은 항상 기도실을 향했다. 기도실에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던 그때, 주님의 두 눈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음을 확신한다. 내가 가장 낮아진 그 곳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확신 있게 이 행복한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GPNEWS]

T국=신호세아

필자는 학교 졸업 이후 T국에서 단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림 묵상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광야에 사는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길도 잘 잃고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겐 이끌어주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양 같아서 나의 원함대로 살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삽니다. 눈 어두워 그제 옳은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광야 길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 [GPNEWS]

글.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북한 인권을 알리는 랜선 뮤지컬 “평양마켓”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유엔이 18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해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북한 인권을 다룬 뮤지컬 ‘평양마켓’이 주목을 받았다.

공연장의 오프라인 공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공연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 작품은 남한의 청년 유튜버가 북한 여행을 하며 남북한 상황을 비교하고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지난 4월 첫 선을 보인 후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6월 초 오프라인 공연을 재개해 5일간 진행됐다. 또한 공연녹화 영상을 스트리밍 형태로 공개하는 ‘랜선 뮤지컬’로도 상영되고 있다. 랜선은 인터넷을 연결하는 근거리통신망(LAN)의 선속, 온라인으로 공연한다는

의미다. ‘와디즈(wadiz.kr)’에서 진행된 스토리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입장권이 제공됐다. ‘평양마켓’은 현재까지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관람했다고 제작소측은 전했다.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메일(thecfg@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된 이 작품은 온라인 관객에게 대한 배려도 섬세했다. 모니터를 통해 소개됐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음향이 잘 어우러져 무대의 현장감을 살렸다. 특히 극이 끝난 이후, 배우 한 사람씩 무대 앞으로 나와 인사하는 커튼콜 장면을 연출, 뮤지컬 현장에 와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뮤지컬의 총연출을 담당한 이형주 대표(신박한제작소)는 “뮤지컬을 통해 북한 인권을 알리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면서 “모두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이때가 이를 알려야 하는 적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북한 인권을 알게 되고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는 후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때가 이를 알려야 하는 적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북한 인권을 알게 되고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는 후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때가 이를 알려야 하는 적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북한 인권을 알게 되고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는 후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북한 인권을 알리겠다는 문 화별동대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신박한제작소측은 한 뮤지컬 관람자로부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소중한 줄 모

르고 살았던 자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 시간이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현실로 실현시키는 시대가 꼭 오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받았다. [GPNEWS]

베트남 억류 탈북민들, 미 외교관 도움으로 한국 도착

지난해 말 베트남 국경경비대에 체포됐다가 미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미 정부와 지원단체에 감사를 표했다고 17일 FNK자유북한방송이 전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탈북민 지원 단체인 갈렙선교회는 여러 외신에 베트남 국경경비대에 체포된 탈북민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동영상 보내 관심을 촉구했다. 동영상에는 절대로 복송될 수 없다며 도로에 누운 채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과 여

러 탈북민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당시 탈북민 13명은 베트남을 경유한 뒤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베트남 국경경비대에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기 직전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있는 아가운데 탈북민 5명은 한국행을 포기하고 결국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1명은 중도에서 탈출한 뒤 베트남에 다시 체포돼 위험에 처해있었다.

외신들의 보도로 관심이 커지자 미국 외교관들이 이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민들은 다행히 한 달 정도 현지에 체류한 뒤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이 한국에 안착한 뒤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민들이 미국 외교관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다며, 이 중에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미 관리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GPNEWS]



▶ 북한 인권을 알리는 뮤지컬 ‘평양마켓’ 사진: 신박한제작소 제공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이연호의 <왕의 손님들>

빈민 목사가 섬긴 왕의 손님

<왕의 손님들>은 빈민 목사로 알려진 이연호의 작품이다. 그는 1919년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나, 일제 식민지 춘천고보(춘천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상록회 사건과 일본인 교사의 망언을 규탄하는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렀다. 당시 그는 자기 그림 한 점을 학교에 걸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목은 <소양정의 걸인들>이었다고 한다. <소양정의 걸인들>은 소실되었으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왕의 손님들>의 모티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왕의 손님들>의 구성은 전문교육을 받은 화가들 못지않게 탄탄하다. 가운데 세 명의 걸인이 중심을 이루며, 이 3인 구성은 지계꾼, 소년, 우산 든 남자의 좌측 3인

과 우측의 대화하고 있는 두 사람, 앉아 있는 걸인에서 다시 반복된다. 3인 1조를 단순 반복하면 답답했을 텐데, 누구는 두 사람과 떨어져 있고 누구는 앉아 있는 식으로 변화를 준 것 역시 남다른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전작 <소양정의 걸인>이 일제에 조국을 빼앗긴 것에 비통해하며, 한민족 모두가 '터전을 빼앗긴 걸인 신세'임을 가리키는 작품이었다면, <왕의 손님들>은 6.25 전쟁과 5.16 군사 정변에 대한 작가의 깊은 슬픔이 성서적 주제에 중첩된 것이다. 작품 아래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왕의 잔치에 초청된 '거리와 골목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연호



목사가 평생 섬겼던 이들이었다. 소외된 사람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한 왕의 명령에 순종한 종처럼, 그는 하나님의 손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동냥 강퍽, 남루한 옷차림, 목발을 짚은 구부정한 자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람들의 무기력한 시

선 등 <왕의 손님들>에 나타난 섬세한 표현은 이연호가 얼마나 근거리에서 이들과 함께했는지를 반증한다. 미국 유학까지 마친 그에게 유달리 기대했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이연호를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이연호 목사는 자작시에서 “아! (나는) 아직도 미

치지 못하고 거지 동네 움집 구석한 앞의 다다미 위에서 오늘도 떨고만 있습니다.”라며 부끄러워했다. [GN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그림설명: 이연호, <왕의 손님들>, 1962년작

심각한 다음세대 성교육 (6)

교과서의 혼란스러운 젠더교육, 우려되는 정치 실험

인간의 성별(sex)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어떻게 나누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회제도들이 성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는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출산휴가는 누가 갈 수 있는지, 여자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자녀의 부와 모는 각각 누구인지 등등 이 모두가 성별의 결정과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젠더(gender)가 성별제도를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성별을 포함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주장되는 '젠더'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사용된 젠더의 국문 표기와 그 내용도 각기 제각각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정의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젠더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불명확성을 지닌 젠더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 2018년에 열린 '교과서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사

전에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에 따르면 성별이 젠더(gender)이고, 성이 섹스(sex)다. 그러나 왜 성별이 'gender'로 번역되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별'을 'gender'

다음은 성의 세 가지 개념(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중 어떤 성을 의미하는 걸까?



▶ 학생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올지도 모르는 개념 정의가 불분명한 '젠더' 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다. 출처: 중학교 보건교과서(2009년), YBM 출판사(p. 93) 캡처

가 아닌 'sex'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차별'이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평등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설명한다. 인권위 해설집의 해석에 따르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혹은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도 전부 포함

되어 차별행위의 범주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의 설명은 성별을 'gender'라 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용어사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2008년 차별판단 지침은 인권위법의 '성별'이란 젠더(gender)를 의미한다고 해석

하며, 이는 여성, 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생물학적 성(sex)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상기 인권위 인권용어사전과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차별판단지침을 종합해 보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성별이고, 이 성별이 젠더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젠더에 포함시키는 개념

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교과서 178페이지에는 '타문화 존중과 자문화 성찰'에서 남자가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처의 그림이 실려 있고, 같은 책 184 페이지에는 “러시아에서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은 동성애자간의 표시이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79~81페이지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설명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 마치 성소수자 문제도 성차별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천재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66페이지와 비상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80페이지에서도 성차별을 다루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고, 동시에 같은 페이지 내에서 성역할과 젠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젠더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이 결국, 남자로 입대했다가 군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해 여자가 된 변희수 문제를 만들어냈다. 또한 최근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지침을 개정해 남성 성기가 있어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냈다. <계속> [GN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7. 3 ~ 7. 22 (가나다 순)

개인
강우수 강주선 고은영 고희자 권순호 김다경 김사희 김선례 김수미 김유남 김진수 박상기 박성규 박용순 박현숙 오양미 유연숙 은종숙 이삼연 장은희 정금자 정영숙 차상복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하은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고현교회 김글렌황경신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열매교회 선한목자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오보평강교회 주소방교회 잠쥬앙더라교회 하원교회 햄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